

느티나무재배



이 여 하
<건국대학농과대학교수>

1. 형태적 특징

느티나무(*Zelkova serreta* Makino)는 오히려 정자나무라는 대명사로 불리울 정도로 녹음수로서의 정자목(亭子木) 가치가 있으며 또한 귀중한 재목이나, 한약재로서의 각기 명칭이 다르며 여러가지로 불리워지고 있는데 귀목(槐木, 欖木, 椴木) 또는 keyaki(榿木) 등의 명칭은 이들의 특징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이 나무는 낙엽활엽수의 교목(喬木)으로서 외나무(孤立木)로 서있을 때에는 옆가지가 무성하여 수관폭이 특히 많고 조림지에서의 수세는 이웃나무와의 관계로 줄기를 곧게 조절할 수 있으며 수관의 폭도 좁게 조절할 수 있으므로 재목을 목적으로 할 때는 밀식을 하여 성장에 따른 간벌로서 우량한 목재를 생산할 수 있다.

잎은 장타원이며 끝이 비교적 뾰족한 편이며 잎언저리는 톱니모양으로 되어 있다.

꽃은 자웅이 따로 떨어져 있으며 4~5월에 피며 열매는 핵과로 10월에 성숙하는데 그 모양은 편편하면서 둥글며 크기가 일정치 않다.

2. 분 포

느티나무는 주로 온대지방에 분포되어 일본의 남부와 중국의 호남지방에서 산둥지방 또는 만주에 이르기까지 그의 생육지역은 넓다.

우리나라에서는 황해도이남지역에 주로 분포되고 있으며 수직적으로는 50~1,200m의 높은 지대에도 생육이 가능하다. 주로 산간의 계곡부에 많이 생육되며 느티나무의 일종인

<목 차>

1. 형태적 특징
2. 분 포
3. 양 묘
4. 적지 및 식재
5. 용도 및 경제성

느티나무라 하면 금방 떠오르는 두가지 특징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녹음수로서의 정자나무를 생각하게 되는데 마을어귀에 한두그루의 나무는 오래된 부락이면 으레 찾아볼 수 있다.

이 나무는 은행나무와 더불어 수명이 길고 수세가 거창하여 그 부락을 지키는 신기한 나무로서 오히려 미신에 가까울 정도로 노력목에 대한 숭배를 하고 있는 부락이 많다.

다음은 괴목(槐木)이란 이름으로 재목으로서의 인기가 있는 나무이다.

즉 실내의 주요재목으로서 사용되며 목리나 재색의 특징으로서 조각재, 악기, 기계, 차량재, 선박재 등으로 그의 용도가 특히 많은 나무로 알려져 있으나 이와 같은 용재로서 집단재배의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직접 재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따라서 이 나무의 재배상 특징적인 것을 소개하여 이 나무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싶다.

둥근느티나무(Zelkova serrata Makino Var. latifolia Nakai)는 일반 느티나무에 비하여 잎의 폭이 넓어 보기에 좋고 녹음이 많으며 수형도 좋은데 이 나무는 충북의 속리산에 분포되고 있으며 수직적으로는 표고 400m로 느티나무에 비하여 낮다.

또한 긴잎느티나무(長葉槻木 Nagaba keyaki)는 느티나무에 비하여 오히려 잎의 폭이 좁은 것이 특색이며 표고 300m 이하에 자라는데 주로 경남의 함양, 충무와 강원도의 통천(通川)에 분포되고 있다하는데 다른 종류에 비하여 수간(樹幹)이 곧지 못하여 건축재로 이용되기보다는 오히려 조각재, 악기재 등으로 이용되며 수형은 옆으로 수관폭이 넓게 벌어져 있다.

느티나무는 분류학적으로 느릅나무과에 속해있으며 일반적으로 잎이 좁고 길며 잎연에 거치형을 하고 있으며 수형은 수고보다 오히려 수관폭이 넓은 정도로 퍼져있어 녹음수로서 알맞은 수종이라고 볼 수 있다.

3. 양 묘

느티나무는 10월에 성숙하므로 10월에서 늦어도 11월안에 종자를 채취하여야 한다. 종자는 핵과(核果)로서 편편한 구형으로서 능각(稜角)을 하고 있으며 모양이 일정치 않고 줄기와 잎사이에 매여 달려있다.

따라서 장대로 털거나 일부가지를 잘라 채취하는데 이 핵과는 물에 띄워서 정선한다.

정선된 종자는 채취직후 가는 모래와 반반 혼합하여 양지바른 경사지에다 약 30~50cm 정도 파고 노천매장(露天埋藏)을 한다.

즉 완전히 핵과속의 종자를 탈각(脫殼)치 않고 매장을 하는데 들쥐의 피해에 주의하여야 하는데 이의 방지로서는 철망으로 씌워주면 좋다.

또한 노천매장시 주의할 일은 물이 매장한 곳에 고이지 않도록 한다.

느티나무의 종자품질에 대한 표준을 보면 순량률 94.9%로서 다른 임목종자에 비하여 좋으며 그의 용적량은 505.39, 실중(實重)은 16.1154gr로서 무게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1내 입수는 32,052개나 된다. 그러나 발아율은 낮아 61.5%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의 파종량 결정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종자의 특성이 다른 수종에 비하여 특이하므로 파종에 의한 양묘법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믿는다. 과거 많은 사람들이 느티나무 양묘에 실패한 예는 이와같은 특성을 고려치 않고 실시했기 때문이다.

종자매장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면 춘기파종을 실시해야 한다.

우선 파종에 앞서 파종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상은 하상(下床)으로 한다. 작상에 앞서 충분한 기비를 넣어야 하는데 기준량은 m^2 당 퇴비 3,000gr, 유박 75gr, 과린산석회 60gr를 각기 흙과 잘 혼합하여 작상하여야 하는데 상은 상면이 보도보다 약 7~10cm정도 낮게 작상한다.

발아 성장에 습기를 요하는 수종은 파종상은 하상으로 하는데 건답(乾畚)에 파종하려 할때는 상상(上床)으로 보도보다 상면이 7cm정도 높게 하여 파종해도 무관하다.

작상(作床)이 끝나면 노천매장됐던 종자를 검사하여 발아에 좋은 상태에 있을 때에는 상에 골을 얇게 파고 m^2 당 0.04l(21gr)를 기준으로 하여 파종한다.

흙덮는 두께는 1.2cm정도 덮고 짚을 썰지 말고 긴채로 파종한 골을 덮어서 건조를 방지토록 한다.

주비나 해갈이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며 발아 전후하여 제초를 자주 해주도록 한다.

m^2 당 약 120분을 남겨두고 솟아기를 철저히 하여 건조예방토록하며 가을에 굴취하여 다른 수종과 마찬가지로 20분씩 크기대로 선묘하여 다발로 묶어 길게 가식하고 묘의 노출부는 거적으로 덮어두면 좋다.

이와같이 월동한 1-0묘는 이식상을 만드는데 작상요령이나 기비의 분량은 파종상에 준하여 실시하며 m^2 당 49분을 기준으로 이식한다.

즉 세로 가로 약 14cm의 간격으로 심어서 전묘를 생산하며 이렇게 하여 양묘한 1-1묘

는 대표생산을 하려 할 때에는 처음에는 1m 간격으로 4~5년 다음에는 2cm 간격으로는 경급이 6cm이상의 큰 녹음수로 시판할 수가 있다.

4. 적지 및 식재

식재적지 문제는 그 재배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즉 목재생산을 전제할 때와 유묘나 대표생산으로서 정원수 주로 녹음수로 팔려고 할 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녹음수 또는 관상수로서 재배하려면 역시 단기 성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밭이나 그렇지 않으면 토심이 깊고 부식질이 좀 있는 야산에 식재함이 유리할 것이고 목재생산을 위한 장기적인 식재지로서는 부락부근의 토심이 깊은 야산지대나 산의 계곡부가 적지로서 비교적 표고가 높은 지대까지 그의 조림적지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식재적지는 그의 범위가 넓어서 풍화토층이 깊은 곳이면 어디서나 성장이 왕성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러가지 품종중 조림적 가치가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느티나무(*Zelkova serrata* Makino)로서 이 나무는 중부 이남에서는 어디서나 성장가능하고 또한 표고도 1,200m의 높은지대까지 분포되고 있으므로 토양적 조건만 알맞으면 이 범위내의 지대에서는 어디서나 식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느티나무는 은행나무와 더불어 생리적 벌기령 즉 자연수명이 가장 긴 수목으로 알려져 있다.

즉 수백년생의 느티나무를 많이 볼 수 있다. 느티나무는 피목으로서 여러가지 용재 특히 특용재생산이 주목적이므로 그의 식재에 있어서는 이 나무의 특성인 수세를 조절할 수 있도록 그의 임목도를 고려하여 식재본수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식재에 있어서는 1-1묘인 2년생묘를 처음 1.8m×1.8m간격으로 ha당 3,000본 가량을 식재하고 성장함에 따라 간벌에 의하여 임목도

를 조절하여 우선 측지의 발생을 억제하고 주지(主枝) 성장을 고려하여 조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간벌은 수관급에 따라 조정하고 간벌로서 목재이용이 곤란하면 이를 정자나무로 이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함이 좋다.

이 나무는 정자나무 즉 녹음수로 식재할 수 있는 크기에 달할 정도면 상당액의 고가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재는 춘식을 하며 특별히 기비를 줄 필요는 없고 주로 임목도 조절에 따른 줄기성장에만 주의하면 된다.

5. 용도 및 경제성

느티나무의 용도는 실로 다양한 것 같다.

관상수 또는 정자목에서부터 어린 잎의 식용, 신탄재, 건축재에서 악기 조각재에이르기까지 용도는 많다고 볼 수 있다.

재목이 치밀하고 무늬가 아름다워 특히 실내장식용에 많이 쓰이나 용재로서의 공급량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느티나무는 건축재, 기구재, 악기재, 조각, 선박, 차량, 신탄재, 정자목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둥근느티나무는 건축, 기구, 기계, 조각, 신탄재, 정자목으로 또한 긴잎느티나무도 기구, 기계, 조각, 정자나무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여기서 언급코자 하는 것은 용재 생산에 따른 장기생산보다는 오히려 관상 내지 정자목으로 시판할 수 있는면에 착안하여 대표생산에 주력함도 현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이 나무의 대표생산은 많지 않은듯 한데 그 이유는 종자의 수집과 발아력의 낮음 또는 생산기간이 길뿐 아니라 대표생산을 위한 면적이 많이 차지하게 되고 이 방면에 대한 정보가 낮은 것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대표의 정자 또는 녹음수로서의 이용면은 공간이 넓은 공원 가로수 또는 일반 조경등에서 사용량이 많은 것 같다.

따라서 경제성분석은 용재로서 시판되고 있는 것이 없어 단위체적당 단가는 알 수 없으나 품귀재목이므로 상당에 달할 것은 확실하다. 그러한 면에서도 이러한 특용수는 집단

재배에 의한 대량생산이 언제나 바람직한 것이다.

대표생산에 따른 관상수의 값은 그 차가 심한 것 같다.

경급 6~10cm 정도에 이르면 수천원에 거래되고 있으므로 바람직한데 전국적으로 큰나무를 보유하고 있는 양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흉고직경 6cm에 도달하려면 8~9년, 15cm 정도는 가로수로도 충분하여 약 13년 정도 걸린다.

이와같이 다년간 밭에서 양묘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이와같이 6~15cm 정도의 큰 나무는 품귀상태에 있다.

6cm에 시가 8,000원 15cm정도면 약 20,000원은 호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같은 느티나무는 산지식재한 재목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오히려 대표생산하는 편이 낫다는 결론이 된다.

요사히 느티나무는 녹음수 정원수 또는 많은 지방에서 가로수로 식재되는 경향이 있어 묘목값이 급히 상승한 예가 있다.

<양계 상식>

◎ 계란의 소화시간

- 종 류 위(胃)에 체류하는 시간
- 반숙란 1시간 30분
- 생 란 2 " 30"
- 구운계란 2 " 45"
- 찐 계란 3 " 15"

계란 100g (약 2개)를 먹은후 위에서 체류 되는 시간을 보면 반숙란이 가장 짧고 위의 부담을 덜 주고 있다.

위에 부담을 덜 주고자 할때는 반숙으로 하고 등산이나 하이킹을 할때는 찐 계란으로 하는편이 좋을 것이다.

계란의 소화 흡수는 위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장(腸)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위에 체류되는 시간의 장단(長短)은 소화흡수율과는 비례되지 않는다.

◎ 가 축 예 방 약

◎ 치 료 제

◎ 소 독 약

◎ 사 료 첨 가 제

◎ 기타국내외약품

총판

상담수의사: 연 두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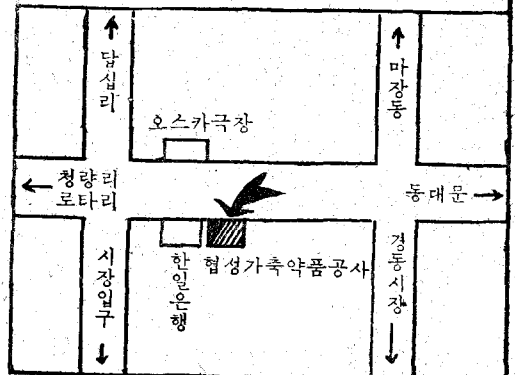
★ 가축질병상담

★ 지방주문환영

TEL 주간 97-8779
야간 96-9231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654

청량리 오스카극장 앞,
한일은행 청량리지점 옆



협성가축약품공사